

도내 최대저수지 토교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시작

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9개 저수지 통수 시작

기사입력 2025-04-07 11:27

[인쇄](#)

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용구)가 올해 철원지역 농사를 위한 영농 급수를 시작했다.

철원지사는 4일부터 도내 최대저수지인 토교저수지(저수량 1741만톤)를 비롯한 9개 저수지를 활용하여 총 6,484ha에 대해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진행한다. 올해 영농급수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.

지난 겨울 많은 눈과 비가 내려 4일 기준 9개 저수지 저수량은 99% 수준으로 영농기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.

김용구 철원지사는 “2025년 안전·풍년영농을 기원하며 저수지, 양배수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적시적소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농민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관리자 (korea78123@hanmail.net)